



차티스, 자동차의무보험 운영자격 취득 예정

이소양 연구원

■ 8월 20일 북경일보(北京日報)에 따르면 차티스(Chartis)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자사의 경영범위를 기존의 책임보험에서 자동차의무보험까지 확대했고, 이에 따라 차티스는 중국에서 자동차의무보험 운영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최초의 외국계 손해보험사가 될 예정이다.

- 차티스는 1992년 중국손해보험시장에 진출하여 작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10.5억 위안을 기록, 외국계 손해보험사들 중에 최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.
- 중국자동차보험시장 수입보험료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3,063억 위안이며, 이중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들의 수입보험료는 5.7억 위안으로 약 0.2%의 미미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.
 - 자동차의무보험 운영 자격이 없는 것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지 못하는 주요인으로 분석됨.
- 현재 중국손해보험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들은 21개사가 있지만 자동차상업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삼성화재, 현대해상 등 9개사가 있으며 자동차의무보험 운영 자격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다고 보도됨.

■ 전문가들은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동차의무보험시장 진입으로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이 심화할 수 있지만 중국계 대형 손해보험회사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.

-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들은 중국계 대형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서비스망이 적고 현지 시장에 대한 과거 데이터 및 배상처리 경험이 부족함.
- 한편, 자동차보험시장 상위에 차지하는 PICC, Ping An, China Pacific은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가 각각 1158억 위안, 493억 위안, 397억 위안으로 37.8%, 16.1%, 12.9%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음(2010년 기준).

(신량망, 금융계, 하원망, 8/22 등)